

# 강종만 영광군수, 민선 8기 지자체장 첫 직위 상실

돈 전달... 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곡성·담양·영암·신안군수 등 재판중  
정치인 신뢰도 하락·행정 공백 우려  
“돈 선거 탈피 엄격한 선거관리를”

강종만(70) 영광군수가 민선 8기 지방  
자치단체장 중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재판 진행 중인 전남지역 6명의 시장·군  
수·시의원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  
고 있다.

향후 최종 판결에 따라 지방행정 공백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  
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  
인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강 군수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1·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직  
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  
정에서 친척 관계인 지역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  
금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씨 진술  
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원을 선  
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돌연 “허위 진술  
을 했다”고 자백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  
다. 강 군수 측은 A씨 자백을 토대로 법리  
오해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  
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  
다.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  
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2008년에도 아  
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  
았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대법  
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무죄를 믿고 지지  
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영광의 화합과 번영을 꿈꾸고 희망하셨던  
영광군민께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강 군수가 권위되면서 김정섭

부군수가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군수의 직위상실형을 접한 영광 주민들  
은 지역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드러  
내고 있다.

영광군민 김모씨는 “후보자들이 감투에  
눈이 멀어 공정한 선거는 뒷전이고 불법  
만 자행하니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  
이다”며 “지역 정치인들이 막장으로 치달으  
면서 민심이 뒤숭숭하고 행정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  
된 고홍근의회 신건호(65) 의원도 항소  
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  
·김주성·황민웅)는 지난 17일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받은 신 의원과 선거사무원 A  
(6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  
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일을 13일 남겨 둔  
2022년 5월 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  
하며 현금 2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  
됐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타 단체장들의 결과도 주목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2심에서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  
고 상고했다. 이병노 담양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는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박우  
량 신안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홍률 목포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  
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매번 되풀이  
되는 돈 선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  
도 보다 깨끗하고 엄격하게 선거를 관리  
해야 된다”고 말했다.

송민섭·영광·김도윤 기자

## 사라진 아들에게 전하는 눈물의 명예졸업장 수여

양동초, 5·18 행불자 이창현군

“위 사람은 본교1학년 재학 중 5·18민  
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으나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양동국민  
학교 1학년 재학 중 실종된 이창현군의 명  
예졸업식이 17일 모교에서 열렸다.

졸업식에는 박철신 광주시교육청 정책  
국장, 임공진 양동초등학교 교장과 이군  
의 어머니 김말임(78)씨와 그의 누나 이  
선영(55)씨가 참석했다.

이군의 모교 후배인 양동초 5·6학년 학  
생 30여명도 졸업식에 함께했다.

특히 양동초13회동문회장인 박준수 시  
인의 추모시 “따뜻한 교정의 품에 안기  
렵”이 낭송되자 가족들을 비롯해 학교 관  
계자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  
을 달랬다.

어머니 김말임씨는 졸업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보고싶은 아들을 떠올렸고 누나  
이선영씨는 동생 이군의 마지막 모습을  
회상하며 인사를 전했다.

이선영씨는 “작고 어린 동생 창현아. 같  
이 학교를 다니며 운동장에서 뛰놀거나  
학교 앞 문방구 앞에서 쭈그려 앉은 모습  
을 잊지 못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  
가슴이 아프지만 이팝나무의 꽃처럼 환하  
게 웃는 모습으로 오늘은 누나와 엄마의  
꿈에 한번 와주라”며 학교 관계자들에게  
“창현이를 양동초 동문으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군의 명예졸업식은 모교 후배들의 교  
가 제창으로 마무리했다.

박철영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그동  
안 제적 여부를 두고 많은 시련이 있었으  
나 이번 명예졸업장 수여식을 통해 이창  
현군과 유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희생된 학생들의 명예가 회



지난 17일 광주 서구 양동초등학교에서 5·18 당시 양동국민학교 1학년 재학 중 행방불명된 이창현군의 명예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임공진 양동초교장으로부터 이군의 어머니 김말임씨가 명예졸업장을 전달받았다.

복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도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은 휴교령이 내려진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동안 집을 나섰다가

행방불명됐다. 그간 양동초는 이군의 명  
예회복을 위해 졸업식을 추진하고자 시도  
했지만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무산됐다  
가 지난해 본보가 5·18 기획시리즈인 “이

제서야 발견된 5·18 행불 ‘창현이의 제적  
기록’”(2023년 5월11일자 5면)을 보도하  
면서 이군의 공식 제적기록이 확인됐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광주경영자총협회 공고

**- 2024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  
**「2024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및 직장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참여기업 신청 공고**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 청년 친화 직장 적응 지원으로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 가치를 높여 장기근속과 기업 성장력을 고취하고자 「2024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및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0.  
**광주경영자총협회장**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4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참여기업 신청

□ 사업목적

- CEO, 중간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으로 공감대 향상
- 청년 신입직원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조직 적응 조기안착으로 중도 이탈 방지 및 장기근속 도모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 운영기관 : 광주경영자총협회

□ 사업절차

광주경영자총협회  
사업공고

광주경영자총협회  
사업신청서 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광주경영자총협회  
온보딩 프로그램  
설계

참여기업  
청년친화 및 온보딩  
프로그램 참여

광주경영자총협회  
우수사례  
참여 후기 공모

광주경영자총협회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청년친화 조직문화(관리자 대상)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신입직원 대상) 설계·운영
- 10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사내 교육장에서 교육 운영
- \* 참여기업 교육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유사 프로그램별 묶어 다수 기업 참여(혼합형) 진행 예정 (교육시기, 장소 등 일괄 진행)
- 교육 참여 관리자 및 신입직원 리더·웰컴키트(5만원 상당) 제공

**2 프로그램(안)**

※ 교육프로그램(안)은 신청기업별 맞춤형 설계로 하단 프로그램(안) 참고하시

(관리자)

- 아이스브레이킹 : 노사문화, 기업온보딩 필요성 등
- 우수 사례 공유 : 온보딩 성공사례, 타사 프로그램 공유 등
- 노사이해 및 리더십 : 청년친화 조직문화 리더쉽 교육, 노사문화, MZ세대와 소통연구 등
- 인사노무 : 인사관리 애로해소(기업 맞춤형 운영), 실천방법 등
- 네트워킹 : 명사초청 강의, 노사 소통공감방법 등

(신입직원)

- 아이스브레이킹 : 노사문화, 기업온보딩 필요성, 화합·유대 등
- 팀빌딩 및 미션해결 : 소속감 증대, 기업가치 이해, 문제해결 훈련 등
- 기업 적응훈련 : 기본 오피스 교육(문서, 생산관리 등)
- 인사노무 : 인사노무, 조직체계, 일하는 방식 이해 등
- 네트워킹 : 명사초청 강의, 노사 소통공감방법, 마음 알아차리기 등

**3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 : 광주지역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최근 1년 이내 청년층 신입직원 채용기업 (사업자등록 기준 광주 소재 자사, 공장 등 포함)

□ 채용시기 : 2023. 5. 1 ~ 현재 \*만 15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신입직원 채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등

※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회 : 고용보험-보험가입정보조회-사업장총괄카드 내 ‘대규모기업(비해당)’ 확인

□ 신청기간 : 2024. 5. 20.(월) ~ 6. 14.(금)

□ 신청방법

- 관리자, 신입직원 프로그램 중 택1 혹은 2가지 다 선택 가능
- 불입(서식)신청서 작성 및 PDF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4 문의 및 접수처**

□ 신청양식 :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jef.or.kr)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24. 5. 20 - 6. 14 (4주간)

□ 신청서류 : (서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명부 각 1부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파일 이메일 제출(gjef\_gjef@naver.com) 및 접수 확인(전화)

□ 문의 처 : 광주경영자총협회 총괄사업본부 청년성장팀 (전화) 062-654-3427